

(비공식으로 제작한 국문입니다)

##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 2021-2025

### I. 소개

#### 1. 배경

- 1.1. 한중일 환경장관회의(TEMM)는 1999년 창설 이래로 동북아 지역의 효과적인 고위급 환경협력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.
- 1.2. 동북아는 공통의 환경 도전과제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, TEMM은 3국 공통관심사인 다양한 환경문제를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왔다. 학계, 산업계,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공하거나 TEMM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TEMM 협력에 기여했다. 장관회의, 국장급회의, 사전 및 사후 실무회의로 이루어진 TEMM의 계층구조는 효과적인 이행 관리, 점검, 평가,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의 개선을 가능케 했다.
- 1.3. 핵심 환경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TEMM체계 하에서 각각 2010-2014(제1차 TJAP)와 2015-2019(제2차 TJAP) 기간에 걸친 5개년 공동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되었다. TJAP의 이행으로 규모와 심도 측면에서 TEMM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지역 내 환경개선과 녹색발전에도 기여했다.
- 1.4. 지난 2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TEMM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,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협정 등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고 전세계적 COVID-19 팬데믹 위기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극복 및 회복하는데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

요구된다.

- 1.5. 글로벌 COVID-19 판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TEMM22 및 제3차 TJAP의 채택이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. 이에 따라 대한민국 환경부,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, 일본 환경성(이하 “3국 환경부”라 한다)는 제2차 TJAP의 이행기간을 제3차 TJAP가 채택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승인하고 제2차 TJAP 하 협력활동의 이행을 계속했다.

## 2. 한중일 공동행동계획 2015-2019(제2차 TJAP)의 전반적 평가

- 2.1. 제2차 TJAP는 다음의 9개 우선협력분야를 설정했다: (1) 대기질 개선, (2) 생물다양성, (3)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 재난 대응, (4) 자원의 순환적 관리/3R/전기전자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, (5) 기후변화 대응, (6) 물□해양 환경의 보전, (7) 환경 교육, 대중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, (8) 농촌 환경 관리, (9) 녹색 경제로의 전환
- 2.2. 제2차 TJAP의 9개 우선협력분야 하 협력활동들은 동 계획에 명시된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이행되었다. 전반적으로 좋은 이행성과를 거두었으나 분야와 주제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었다. 공동의 정치적 의지, 3국 환경부의 지원, 협력주제 및 업무 방식에 대한 신속한 합의, 담당자 및 이행기관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협력 활동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.
- 2.3. 대부분의 우선협력분야에서 정책대화, 세미나, 또는 포럼 형태의 정례 회의 메커니즘이 각 분야의 여러 협력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했다.
- 2.4. 제2차 TJAP의 이행을 통해 대기오염, 환경교육 등 전통적인 환경 과제에 대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되었다. 한편, 3국은 재난 폐기물,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, 미세 플라스틱, 침입

외래종, 저탄소 도시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시의 적절한 협력을 이행했다.

- 2.5. 많은 분야에서 협력활동은 기후변화협약(UNFCCC), 생물다양성협약(CBD)과 같은 다자간 환경협정 등 주요 국제체제의 맥락에서 이행되었으며, 일부 활동은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(NOWPAP), 아시아 물환경 파트너십(WEPA) 등 지역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.
- 2.6. 제2차 TJAP의 이행을 통해 3국은 우선협력분야의 정보, 경험, 우수사례 교류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역량을 개선하였으며 대중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및 글로벌 환경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업 및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했다. 그 결과, 지역 및 글로벌 환경협력에서 TEMM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져 왔다.

## II. 비전, 원칙, 목적

### 1. 비전

- 1.1. “환경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문(2015)“, “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(2018)“, “향후 10년을 위한 3국 협력 비전(2019)“ 등 그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비추어 생태 문명, 자연과 조화로운 삶, 녹색 전환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고려하고 3국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
- 1.2. 함께 더 긴밀히 협력하고 3국 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,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등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, 녹색회복, 사회경제의 재설계,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진보를 통해 COVID19로부터의 더 나은 녹색회복 노력을 지원

## 2. 원칙

- 2.1. TEMM 체제 하 협력은 3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.
- 2.2. 제3차 TJAP 하 협력활동은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간 상호 의존성과 각 우선협력분야 간 연계를 고려하여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이다.
- 2.3. TEMM은 3국이 경험, 노하우를 갖고 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서 3국 간 합의 하에 G20, ASEAN+3, APEC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하고,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등 가능한 “3+X” 협력을 추진하여 역내 및 그 너머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.
- 2.4. TEMM 협력활동은 상호 존중, 상호 이익, 각국의 가용한 자원을 바탕으로 수립되고, 각국의 개발단계 차이를 존중하며, 효과적이고 효율적 메커니즘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선될 것이다.

## 3. 목적

- 3.1. 3국 환경부는 제II.2항의 원칙에 따라 제II.1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. 한중일 공동행동계획 2021-2025(제3차 TJAP)의 목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동안 TEMM 하에서 추진될 행동을 제시하는 데 있다.

## III. 우선협력분야, 활동, 행동

### 1. 우선협력분야

1.1. At TEMM21에서 3국 장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의 TEMM협력을 위한 새로운 우선협력분야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.

- (1) 대기질 개선
- (2) 3R/순환 경제/폐기물 제로 도시
- (3) 해양 및 물환경 관리
- (4) 기후변화
- (5) 생물다양성
- (6)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
- (7) 녹색경제로의 전환
- (8) 환경교육, 대중인식 및 참여

## 2. 활동

2.1. 활동은 정책대화, 세미나, 또는 포럼 등의 형태로 개최되는 3국간 모임으로, 이를 통해 행동을 계획, 이행, 조정,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다. 8개 우선협력분야에서 이미 구축되었거나 새롭게 수립될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대기질 개선
  -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(TPDAP)
  - 황사 실무그룹(DSS WG I & II)
- (2) 3R/순환 경제/폐기물 제로 도시
  - 한중일 3R/순환 경제/폐기물 제로 도시 세미나
- (3) 해양 및 물환경 관리
  - TEMM-NOWPAP 공동 워크숍

- 한중일 물정책 □ 기술 포럼
- (4) 기후변화
  - 한중일 기후변화, 탄소중립, 지속가능 회복 정책대화
- (5) 생물다양성
  -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(TPDBD)
- (6)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
  - 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 및 전문가 세미나(TPDCM & TЕСM)
  - 한중일 환경재난대응 임시 대화
- (7) 녹색경제로의 전환
  - 한중일 환경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플러스(TREB+)
- (8) 환경교육, 대중인식 및 참여
  -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(TEEN)
  - 공무원 환경연수
  - TEMM 청년포럼

### 3. 행동

- 3.1. 행동은 각각 특정 주제, 목적, 이행방식을 갖는 본 TJAP의 기본 단위이다. 각 행동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행동과 연계하여 해당 우선협력분야 하 활동을 통해 계획, 이행, 지원될 수 있다.
- 3.2. 행동의 목록과 설명은 부속서에 명시된다. 행동은 상황 및 협력 관심사의 변동을 고려하여 본 TJAP의 이행기간 동안 3국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업데이트 될 수 있다.

## IV. 이행 체계

## 1. 이행 메커니즘

- 1.1. 제III.3항의 각 행동 별로 3국 환경부에서 각각 최소 한 명의 담당자를 지정할 것이다. 각 행동의 3국 담당자는 해당 행동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상호 소통한다. 행동 별 담당자들은 해당 행동의 이행을 논의, 계획, 실행하고, 그 결과를 요약하여 TEMM 사전 □ 사후 실무회의에 보고한다. 이들은 새로운 협력과제 또는 수요에 대응하여 행동의 주제나 이행방식을 업데이트 또는 개선할 수 있다.
- 1.2. 각 행동들은 제III.2항의 활동을 통해 이행되거나 이행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1.3. TEMM 사전 및 사후 실무회의(Pre-TEMM and Post-TEMM WLM)는 전반적 TEMM 협력을 조정한다. 실무회의는 행동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조율하며 각 행동별 담당자 간 소통을 촉진한다. 실무회의는 1년 단위로 우선협력분야 하 행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TJAP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급회의(DGM)의 검토를 받는다.
- 1.4. 국장급회의(DGM)는 Pre-TEMM이 제출한 TJAP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과 제언을 제공하며 장관회의(TEMM)에 보고할 보고서를 채택한다. DGM은 또한 한중일 황사 공동연구의 이행성과를 보고 받고 이를 확인한다.
- 1.5. 장관회의(TEMM)는 협력활동의 전반적인 진전과 성과를 감독하고 지침을 제공한다.

## 2. 이행 기관

- 2.1. 본 TJAP는 3국 환경부 그리고/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이행기관이 공동으로 이행할 것이다.

2.2. 3국의 합의를 바탕으로, 본 TJAP 하 협력은 3국 협력 사무국(TCS)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함께 또는 지원을 받아 이행될 수 있다.

### 3. 자원

3.1. 본 TJA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3국 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여한다.